

전국 최대의 온라인망

통 상 우리들은 우체국 하면 편지나 소포를 부치는 곳 정도로 알고 있다. 그러나 우체국을 좀더 관심있게 들여다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할 수 있다. 특히 납기일에 맞추어 일일이 금융기관을 찾아가 대금을 납부할 여유가 없는 경우, 우체국과 간단한 자동이체 약정을 맺으면 이 온라인 종합통장에서 대금이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납부되는 알뜰함을 더할 수 있다.

생활정보

우체국의 종합금융 온라인서비스

에서 얼마나 편리하게 이용될 수 있는 곳인지 실감하게 될 것이다.

현재 우체국의 전국 2,700여 모든 우체국을 온라인망으로 연결하여 낙도·산간벽지통에 까지 예금·보험 등의 금융서비스와 특산물 주문판매, 항공권 등 예매 인사문과 함께 결혼축의금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는 경조환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일반 국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종합서비스 기관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는 우체국이 기존의 우편서비스에 고수익을 보장하는 금융서비스를 접목시킴으로써 우리생활에 편리를 더해주는 첨단서비스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알뜰주부의 가계부, 온라인종합통장

통장하나로 보통예금, 저축예금은 물론 정기예금, 정기적금 등 다양한 예금거래를 할 수 있는 온라인종합통장은 우체국이 제공하는 차별화된 금융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다목적 통장이다.

알뜰주부라면 세금 하나를 내더라도 마감일에 내는 것이 여러모로 절약이라는 것을 모르는 이가 없겠지만, 이 경우 일반적으로 은행창구보다 덜 붐비는 우체국 창구를 이용하면 시간을 절약

최근에 도회지에서 생활하는 자녀들이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댁의 전기나 전화요금을 자신의 우체국 온라인종합통장에서 매월 자동납부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이야말로 우체국을 효과적으로 이용하여 작은 효도를 실천하는 생활의 지혜라 하겠다.

온라인종합통장은 타지역에 송금 할 때에도 은행보다 값싸게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은행의 송금수수료는 700~900원의 기본료에 10만원 추가시 1백원이 더 가산된다. 그러나 우체국은 10만원까지는 100원이고 10만원 초과때 마다 100원이 가산됨으로써 은행보다 6~8백원을 절약할 수 있다. 송금수수료의 최고요금 역시 은행들이 1만원부터 1만2천원까지 받고 있는데 비하여 우체국은 은행의 최저요금 수준인 1만원을 받고 있다. 한편 출장시 등 타지역에서 본인이 예금을 인출할 때에도 은행에선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있으나 우체국에선 받지 않는다.

더우기 이 통장에 가입한 고객은 체신현금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는데, 이 카드를 이용하면 현금자동지급기(CD)를 통하여 편리하게 자금을 이체송금할 수 있으며, 지역 및 금액에 관계없이 수수료를 전혀 받지 않고 있다.

온라인 종합통장의 또 하나의 서비스로 가계수표제도를 들 수 있는데, 이 제도의 이용자는 가계수표를 발행하여 현금없이 대금을 결제할 수 있음은 물론 단기간의 자금대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부여된다. 가계수표의 발행자격은 공무원, 정부투자기관 임직원, 교사 등으로서 봉급의 50% 이상을 이 통장에 급여 이체하는 고객에게 주어지며, 자금의 일시대출은 최고 500만원 이내에서 3개월까지 금리는 연10%로 유리하여 봉급생활자에게 인기가 높다.

한편 정부의 2단계 금리자유화조치로 대부분의 여·수신 금리가 자유화됨에 따라 우체국예금도 타 금융기관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예금금리를 지난해 12월부터 일반 시중은행보다 높은 지방은행의 금리수준으로 상향조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로써 93년 12월 1일 이후의 계약자에 대해서는 변경된 이율이 적용되 종전보다 높은 수익이 보장됨에 따라 우체국 이용고객은 날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결혼축의금 송금서비스 각광

이웃의 경조사에 소홀함이 없이 돈독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회생활의 매우 중요한 일 중의 하나라 하겠다. 그러나 바쁜 직장생활속에서 일일이 경조사에 참석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러한 애로를 덜어주기 위하여 우체국에서는 저렴한 요금으로 경조금과 함께 축하와 위로의 뜻을 아울러 전해주는 경조환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지정된 시간에 꼭 배달되어야 하는 결혼축의금의 경우에는 어느날 몇시에 전달해 달라고, 시간까지 미리 지정할 수 있으며 보내고자 하는 사람이 여럿인 경우에는 10명까지 공동명의로도 보낼 수 있다. 온라인 종합통장에 가입한 이용자가 통장가입시에 간단한 약정만 체결하면

우체국까지 가지 않고도 전화로 송금을 신청할 수 있다. 이 서비스의 요금은 10만원까지 1,850원이며, 송달일시 지정의 경우에는 50원이 추가된다.

이 제도는 그동안 홍보 및 일반의 관심부족으로 이용이 미미했으나, 최근에 송금카드와 봉투의 도안을 새롭게 개선한 이후, 결혼식은 물론 각종 개업식, 출판기념 행사 등에 다양하게 이용되어 매년 4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인기를 더해가고 있다.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와 추심료 없어

우체국의 자기앞수표는 추심료 없이 전국 어느 우체국에서나 현금과 같이 이용할 수 있어 시중은행 자기앞수표 보다 환영받고 있다. 또한 은행에서는 자기통장의 예금을 자기앞수표로 찾는 경우에도 1매당 정액권은 30원, 부정액권은 150원 안팎의 발행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우체국에서는 무료이다.

고수익상품, 환매조건부채권 인기 높아

환매조건부채권은 단기 여유자금을 맡겨두기에 알맞은 상품으로, 고객이 자신의 예금으로 채권을 사면 돈이 필요할 때 우체국이 그 채권을 되사들여 현금화시켜 주는 제도이다. 명칭상으로는 채권이지만 고객의 입장에서는 여유자금이 있을 때 예금을 하고 현금이 필요할때 언제든지 인출되므로 일반예금과 같이 거래하면서 이율은 타 금융기관보다 훨씬 높다.

이자율은 7~15일이면 연 2.5%, 16~30일은 연 3%, 31~60일은 연 4%, 61~90일은 연 5.5%로, 은행이 90일 이내에 인출시 연 1%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과 달리 예치기간에 따라 이자를 높게 주고 있어 서민들의 단기저축 수단으로 인기가

높다.

농어촌을 돕는 특산품 주문판매

우체국을 통해서 특산품 등 다양한 농수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농산물의 시장개방으로 밀려 들어오는 외국 농산물과 힘겨운 경쟁을 해야 할 형편에 있다. 이와 같은 때 우체국의 주문판매제도의 이용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농촌을 도와주면서 고향의 맛과 정을 흠뻑 느낄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우체국 특산품 주문을 신청하면, 고객의 주문 정보는 전국 우체국의 온라인망을 통하여 생산자인 농어민에게 즉시 전달되고, 농어민은 주문상품을 당일에 발송함으로써 2~3일이면 상품을 받아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생산자와의 직거래로 싸 값에 살 수 있는 이점이 있다. 갈수록 바쁜 도시 생활에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단체등에서 품질을 보증하기 때문에 믿고 구입할 수 있으며 특히 선물로도 아주 적합하여 날로 각광을 받고 있다.

취급품목은 속초 명란젓, 완도 김, 영광굴비, 순창고추장, 울릉도오징어등 이름만 들어도 금방 알 수 있는 특산품등이 880여 가지에 달한다.

최고 공신력의 우체국보험

우체국 보험은 도시서민이나 농어촌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행하는 비영리 공익사업으로 민영보험보다 보험료가 싸며 가입한도액도 3,000만원으로 서민들의 부담이 적다. 또한 우체국 보험은 전국 2,700여 우체국에서 취급하므로 이용이 편리하며 높은 수익률과 각종 사고시 폭 넓은 보장을 통하여 가계의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우체국에서는 11종의 다양한 보험상품을 취급하고 있다. 먼저 목돈마련을 돕는 저축성 보험으로 복지보험, 가계안정보험, 알뜰적립보험이 있고, 불의의 재해에 대비하는 보장성 보험으로 정기보험, 다보장보험, 건강보험이 있다. 아울러 저축과 보장을 겸비한 보험으로 태아부터 생활자립시까지 학자금등을 보장하는 장학보험과 학자금보험, 풍요로운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보험, 중년기의 윤택한 생활을 보장하는 상록보험, 근로자의 생산형을 돕는 직장보험이 있다.

저렴한 보험료와 폭넓은 보장

최근에는 각종 재해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보장보험의 판매가 급신장하고 있는데 이 보험상품은 각종 재해를 당하였을 때 최고 계약금액의 20배까지 보장해줄 뿐만아니라 재해로 입원을 한 경우는 별도로 입원금부금을 지급해 주고 있다.

우체국보험의 유리한 점은 보험료의 경우 40세인 사람이 5년 만기 1,000만원짜리 복지보험에 가입하면 월불입 보험료는 민영보험이 142,500원인데 비해 우체국은 134,000원이다. 환급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의 경우 민영보험의 대출한도액은 환급금의 70% 범위내인데 비하여 우체국보험은 80%까지 대출해 주며, 대출금리도 민영보험의 연 12%에 비해 우체국보험은 연 11.5%로 0.5% 포인트가 유리하다. 이 밖에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민영보험이 2개월인데 우체국보험은 3개월로 1개월이 더 길어 연체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아울러 보험료를 집배원에게 손쉽게 납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위와 같이 우체국의 변화하는 모습을 소개해 보았다. 이제 우체국은 높은 공신력과 전국에 펼쳐진 온라인망을 활용한 정보화시대의 첨단 종합 금융서비스 기관으로 더욱 가까운 이웃으로 다가서고 있다.